주요 내용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 ▐

□ **최근의 물가 동향**

- 올해 5월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6, 7월 들어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물가 상승의 원인**

-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을 비롯한 공업 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6월 물가 오름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수해 등으로 산지 공급이 감소한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과 시내버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7월 물가 상승을 주도함

□ **하반기 물가 전망**

- 하반기에는 국제 원유가를 비롯한 수입 원재료 가격의 강세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으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전망임
- 한편,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초과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 내지는 외부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여 단기 금리 인상에 의한 총수요 관리로 대응할 경우 과도한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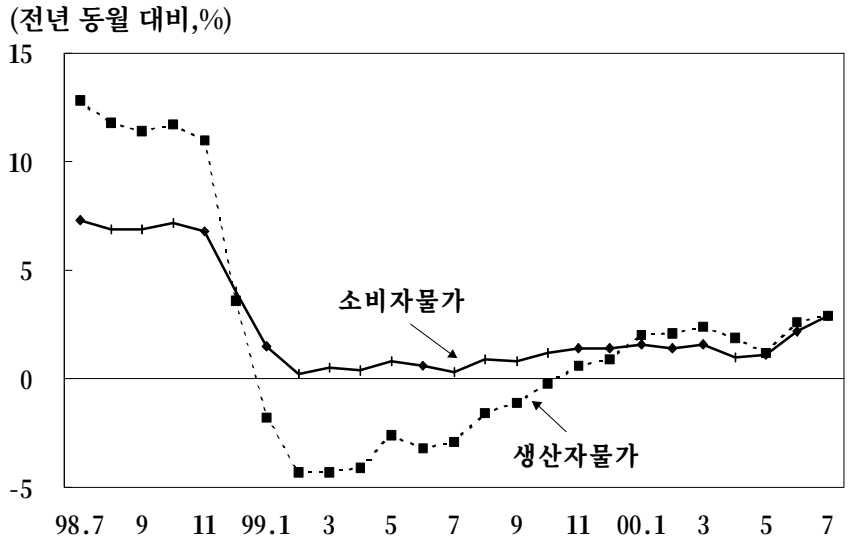
현안 분석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

최근의 물가 동향

- **올해 5월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6, 7월 들어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0.8%의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는 올해 4, 5월중에는 전월 대비 각각 0.3%, 0.1% 하락하는 등 올해 들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 오르는데 그쳐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음
  - 그러나 6월 들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5%(전년 동기 대비 2.2%) 올라 상승세로 반전된 후 7월에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2개월 연속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됨
  - 생산자 물가도 6, 7월 중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와 2.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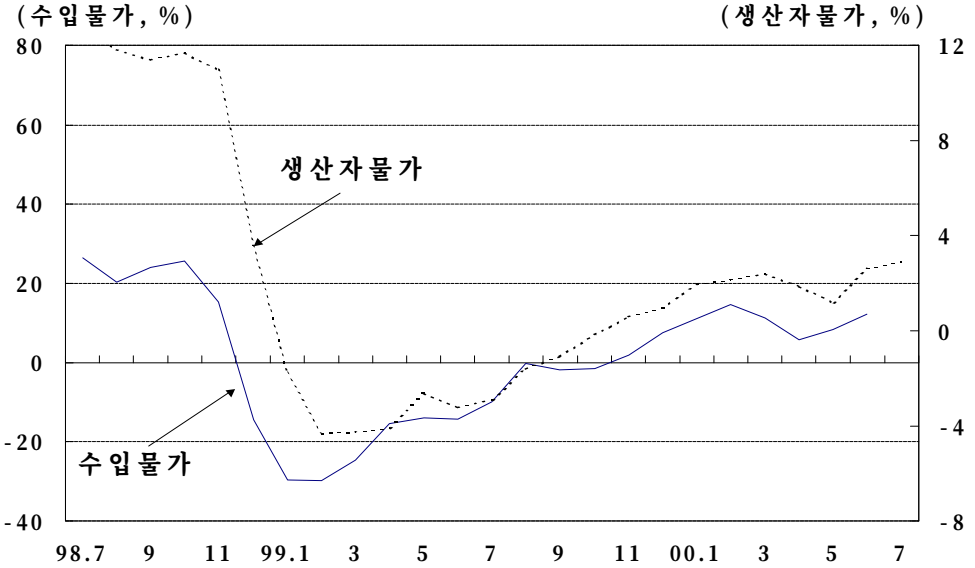
< 최근의 물가 동향 >



물가 상승의 원인

-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을 비롯한 공업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6월 물가 오름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국제 유가는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5, 6월 중 배럴 당 평균 26 달러를 상회하여 6, 7월 중 국내 석유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됨
  - 정부는 올해 3월 국내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유가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했으나 5월 이후 탄력세율을 원상 복귀시켜 5월 이후 국제 유가의 인상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6월 중 공업제품 가격은 휘발류, 등유 등 석유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2% 올랐으며 원가격은 원유가격 급등으로 전월 대비 6.5% 상승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킴
  -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원화기준)는 5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국제 원유를 비롯한 수입원재료 가격의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의 오름세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줌

< 생산자 물가 및 수입 물가 추이 >



- **수해 등으로 산지 공급이 감소한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과 시내버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7월 물가 상승을 주도함**
  - 7월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이상 고온과 수해로 인한 공급 차질로 전월 대비 0.7%(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해 6월에 오름세로 반전된 이후 2개월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정부는 7월 들어 시내버스 요금을 20% 인상시키는 등 그 동안 최대한 억제해왔던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용인하여 7월중 서비스 요금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함
  - 한편, 6, 7월 중 소비자 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각각 0.2%, 0.3% 상승하는데 그쳐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국제 유가의 상승과 기후 여건 변화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동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주로 기인했음을 시사함

< 소비자 물가 등락률 추이 >

(전기 대비, %)

	1999				2000						
	1/4	2/4	3/4	4/4	1	2	3	4	5	6	7
소비자 물가	0.5 (0.7)	-0.5 (0.6)	0.9 (0.9)	0.4 (1.3)	0.2 (1.6)	0.3 (1.4)	0.3 (1.6)	-0.3 (1.0)	-0.1 (1.1)	0.5 (2.2)	0.3 (2.9)
농축수산물	5.1	-4.5	5.9	-1.0	1.8	1.1	-1.4	-2.4	0.0	0.3	0.7
공업제품	-0.5	0.8	0.5	0.7	-0.3	-0.1	0.2	-0.7	-0.1	1.2	-0.1
서비스	0.0	-0.4	-0.1	0.6	0.1	0.3	1.1	0.4	0.1	0.1	0.4
근원 인플레이션	0.3 (0.8)	-0.1 (-0.2)	0.3 (0.2)	0.2 (0.6)	0.2 (0.7)	0.2 (0.7)	0.5 (1.0)	0.1 (1.2)	0.1 (1.4)	0.2 (1.6)	0.3 (2.0)

주: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하반기 물가 전망

- **하반기에는 국제 원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재료 가격의 강세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으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OPEC 회원국들의 유가 하락 경계 의지, 난방유 성수기에 대비한 정유사의 원유 구매 증가 등으로 하반기에도 유가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교통요금, 전기료, 의료보험수가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하반기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여름철 수해·태풍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의 변동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음

-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초과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계절 변동을 조정한 전 분기 대비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1.8%로 99년 2/4분기 4.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4.1%→3.3%→2.8%→1.8%)를 보이고 있어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도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내구재 수요가 줄어들고 백화점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일반 가계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수요 요인보다는 비용 요인 내지는 외부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여 단기 금리 인상에 의한 총수요 관리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경제가 올 1/4분기에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 경기과열을 방지하지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상 조치는 무의미함
· 특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는 등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과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실물경제를 과도하게 위축시킴으로서 경기 하강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조성원 연구위원 *sucho@hri.co.kr* ☎ *3669-4020*)